

## 관계의 장신구

우리가 보는 모든 형상은 두 종류로 나뉜다. 신이 만든 형상과 인간과 만든 형상으로, 그리고 그들은 탄생과 소멸 사이를 흐르고 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손을 빌어 태어난 형상들이 장신구라는 이름으로 주변의 공기를 응축시켜 두른 채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작고,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물어보는 듯하다. 원형, 상(象), 혹은 이데아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느냐고, 구체성을 통해 보편을 추구하는 어떤 시도가 보이지 않느냐고.

6명의 장신구 작가가 조직한 전시그룹 ‘장신구상’이 만들어가고 있는 현대 장신구전은 올해 6회 째이며 국제전으로서는 두 번째 기획이다. 올해는 네덜란드의 작가 6명을 초대해 12명이 합동전시회를 갖는다. 길거리에서 코스프레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문신, 피어싱, 성형수술, 브랜드 등이 과거의 장신구가 하던 역할을 대신할 때, 옷이나 몸에 매달려 장식의 역할을 하는 장신구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2009년에 출범한 그룹 ‘장신구상’의 기획전 시리즈는 ‘장신구성’이라는 표현의 영역을 제시하며, 장신구의 동시대적인,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보여 지는 그들의 역할은 좀 더 심화되었으며 세 가지로 그 미덕을 보이고 있다.

## 그들의 미덕 세 가지

이 장신구들은 긴 시간 노동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형상 속에는 ‘그 어떤’ 형상과 물성에 대한 작가들의 여정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다. 하나의 형상을 잡기 위한 성찰적 물음과 그 결과로 태어난 이들의 작업은 이러한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가치를 형성한다. 모든 것이 일회용으로, 기계에 의해 태어나고, 그에 대한 순간적 소비가 행해지는 시기에 그 반대 축에 자리하는 인간의 견고한 노동, 시간,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사색, 그 과정을 거쳐 태어난 결과물은 신의 창조과정을 흉내 내는 전인적 과정이며, 인간만의 특권이기에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공예적 과정이라고 부르며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이 노동과 사색의 과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들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 장신구가 보여주는 두 번째 미덕은 모든 형상의 근원, 즉 상에 대한 질문을 보여주고, 이데아에 대한 탐구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상’은 동양철학에서의 이데아의 대응체로서, 일체의 구체적 형상을 관장하고 그것을 탄생시키는 원형적 형상으로 도(道)의 형상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원형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지상에 인간이 빚어내는 모든 인공형상들은 ‘어떤 지경과 경지’를 기획하거나 꿈꾸고, 그런 것이 탄생되었을 때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준다. 이 과정은 또한 융(Carl G. Jung)이 말 한대로 플레로마(pleroma) 즉 우주의 보편성이 클레아투라(cleatura)과정을 통해 자기를 현현하고 승화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클레아투라의 과정은 개성화의 과정이며, 이 둘은 서로를 수용하면서 같이 상승한다. 개성화를 통하지 않은 보편성은 지상이 등장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들 작가의 클레아투라로서의 오브제들은 원형적 상에 대해 질문을 하게 한다. 눈감은 여성은 길을 묻는다. 눈 감은 여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은유이며, 원형적 예시이다. 그녀는 신화속의 인물처럼 우리가 결코 닿지 못할, 말해 질 수 없는 이야기를 환유시키며 그 길 어디엔가 있었을 과거의 나, 혹은 미래의 존재성에 대해 눈 감은 채 물어본다. 장신구가 아닌 ‘장신구적인’ 것을 만든다는 작가는 우주 공간에서나 들릴 것 같은 원형의 소리, 보여 지지 않는 형상들을 견고한 물성으로 고정시키면서 시원적 상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지상의 언어, 색채, 소리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으며, 오로지 ‘그 어떤 형상’을 통해서만 담아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치열한 열망이 극히 미니멀한 형상으로 완성된다. 그리하여 그렇게나 작은 오브제가 뿜어내는 운동성은 오히려 광대하게 펼쳐지는 것이다. 주술적 색채와 형상, 애매한 물성을 주로 사용하는 한 작가의 작품은 인간의 몸 어딘가에 있을 듯한 부분을 낚아 올려 이질적인 것들과 같이 펼쳐 놓는다. 질감이 있고, 구멍도 있고, 소리도 날 듯한. 마주하기 힘든 우리 몸의 원시성이 잎사귀와 만나기도 하고, 거칠거칠한 노끈과 조우하면서 또 다른 층위의 몸을 만들어 낸다. 또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완벽 직선과 곡선을 현란하게 보여주는 기하학적 향연체도 있다. 이 작품들은 프랙탈 큐브를 형상화하는 듯하여 기하로서 물리(物理)를 푸는 유희를 보여준다. 이같이 극한 추상을 통한 물리의 한 면을 보여주는 작품의 정 반대의 축에 장식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작가도 있다. 이 작가는 솔직하면서도 다정한 자세로 모던 공예와 디자인이 거부한 디테일, 과다함에 대한 찬미를 보여준다. 무용(無用)의 과다함을 통해 오히려 정교함의 미학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표면을 장식한 저 패턴이며 촘촘한 장식에 수없이 닿았을 작가의 손길은 ‘수공적 미’에 대한 우리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한국의 작가들과 네덜란드의 작가들은 대비를 이루면서도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그들은 몬드리안(Pieter C. Mondrian)의 후예들이다. 그는 모든 형상의 근원을 수직과 수평으로만 해석했고, 삼원색과 비 삼색으로만 만들어낸 ‘구성’(Composition) 한 장을 통해 그가 믿는 이데아를 단숨에 형상화시켜 버렸다. 신 조형주의의 기수인 데 스틸(De Stijl) 지에 활발히 기고를 하다가 반 도스브르크(Theo V. Doesburg)가 그림에 사선을 도입하자 잡지 기고를 중단했다. 이 정도로 자신의 시대성과 그 조형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지닌 시조를 지닌 네덜란드 작품에서는 기하학적 도형이 지닌

구조적 힘이 시원스레 보인다. 짜임새 있는 정연함까지 함해서, 말 그대로 인공 조형적이며, ‘작은, 거대한 오브제’이다. 모순어법을 통해서 만 이야기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장신구는 인간의 부드러운 몸을 강화하고 보강하는 선이나 형태가 아닌, 몸에 도전하는 기하학적, 도식화된 선을 과감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몸에 비해서 작지만, 몸에 비해 거대하여 작용했을 때 우리 몸이 갖는 또 다른 차원의 미를 보여준다. 이들의 장신구는 현대적 주술같이 보인다. 원시인의 타투나 장신구가 변형된. 이렇게 이들 작품은 각기의 개성화를 보여주며, 그 질문과 답에 대한 여정의 깊이만큼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함을 자랑하여 수준 높은 공예의 미학 또한 획득하고 있다.

## 표현이 아닌 대화의 매체로

그럼 이들은 소비자에게는 무엇인가? 기존의 장신구는 몸이나 패션의 어떤 면을 보강해 주는 장식적 매개체였을 뿐이다. 그리고 장신구상전은 첫 해부터 장식성에서 벗어나 표현을 강조하면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작품은 더 이상 표현에서만 머무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들은 대화 혹은 소통을 제안한다. 이것이 이들 전시회가 갖는 세 번째의 미덕이다. 생각해 보자. 일 개별자가 어찌 상이며 이데아를 표현하겠는가? 단지 이런 기회에 그것을 형상화하는 과정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닐까? 이들 장신구는 역명의 거리에서 상대에게 말을 거는 발신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가 아닌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니 같이 생각해보자’는. 이들 장신구 하나하나가 은유하는 것을 확산시키면서 소통을 지향하는 매개체로서 말이다.

전시장에 작은 오브제들이 웅크리고 있다. 모두가 뒤섞여 흐르는 운동 속에서 이들 오브제는 시원적 상을 생각해 하기에 값지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대화의 기회를 주니 더욱 값지다. 공방에서 태어난 이것들이 우리의 몸에 부착되어 움직이게 되면, 이들의 영역은 플레로마 즉 보편성의 경지로 넘어가면서 너와 나, 나와 그들의 관계를 상승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장신구가 될 것이다.

조현신 / 디자인문화 전공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교수

## Jewelry of Relationship

Every form we perceive falls into two categories. One created by God, the other by man, and they flow between birth and death. Among them, quietly but impressively exists a form created by man and named jewelry. It is small, concrete and static. When I contemplate the form, it suggests to me the words, *Archetype*, *Sang*, or *Idea*, and I seethe attempt to reach eternality through visualization.

*JewelryConception* was organized by six Korean jewelry artists in 2009, and this year's exhibition is the sixth in total and the second international event joined by six artists from the Netherlands. Today we often see public exhibition of costume play, and tattoo, piercing, plastic surgery, and fashion brands have largely replaced the traditional role of jewelry. The function of jewelry as a decoration for clothing or the body seems to have lost its meaning. This was the social background where *JewelryConception* started in 2009, claiming the new territory of expression, *Jewelry-ness*, and they have extended the horizons of contemporary jewelry. Their contribution seems to have matured to three virtues in this exhibition.

## Three virtues

These jewelry pieces came to life through long labor and the journey of each artist to find a *certain* image and material. They are the answers to reflective questions in a search for an image and this process alone endows value to each piece. Consider our modern society where most products are produced by machine, are disposable and consumed impulsively, the process chosen by these artists is quite contradictory. It requires hard labor, much time, and the same amount of thinking. This is such a valuable human privilege and we call it craft and cherish it. However it is not just labor and thinking that makes these artworks valuable. The second virtue is that they represent exploration for *Sang*, the essence of all forms. The oriental philosophical term *Sang* which can be compared to Plato's *Idea*, is the archetypical form that generates all the perceptible forms. Despite whether the archetype actually exists or not, we experience a great sensation when an artist dreams or tries to reach to the eternal and ideal world. Carl G. Jung described this as a process of *Creatura* which *Pleroma*, the

universal and eternal idea manifests into an individual and perceptible form. Idea only can come to exist in the real world through individualization, *Creatura*.

These artist's objects as *Creatura* pose questions upon the archetype. The woman with closed eyes asks for direction. The woman herself is a metaphor and an example of the archetype. She, like heroes in a myth, lets us imagine a story that we can't reach or can never be told, and she asks us about our selves in the past and being in the future as her eyes are closed. The artist claims that he creates not a piece of jewelry, but something of *jewelry-ness*. He is constantly searching for an archetype, by trying to capture sounds from the universe and invisible images then change into tangible forms. The artist's intense desire for something that cannot be reached by common language, colors or sounds, but only captured by *a certain image*, concludes in extremely minimalistic forms. Therefore such a small object radiates a vast dynamic energy. Another artist uses mainly shamanistic colors, forms, and unconventional materials. He takes a form that feels like a part of the human body and juxtaposes it with heterogeneous forms which have textures, holes and feels like even make a sound. When an unusual, primitive image of our body encounters forms of leaves or rough rope, it creates another layer of the body. Also there are pieces that are like a feast of geometry, featuring perfectly straight lines and curves. These pieces look like fractal cubes, so it seems that the artist enjoys solving a puzzle of physics using geometry. On the opposite side from these extreme abstractions, another artist shows affection toward decoration. She sincerely and sentimentally praises excessive details which were once rejected by modern craft and design. She subverts excessive useless-ness to the aesthetics of the exquisite. Look at all the patterns filling the surface and imagine the artist's handiwork on each of them. How greedy are we for the beauty of handcraft!

Artists invited from the Netherlands contrast with Korean artists, yet share common virtues. They are descendants of Piet C. Mondrian. Mondrian analyzed the essence of forms into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then presented the *Idea* that he believed with one composition consisting of the three primary colors and three other colors. He had written very actively for *De Stijl* which was the leading magazine of Neo-plasticism until he quit because Theo V. Doesburg included diagonal lines in his painting. This story shows how confident and devoted Mondrian was to his time and aesthetics, and this has descended to the structural power of geometric shapes in these Dutch artists' pieces. These jewelry pieces are small large-objects. Conflicting irony has to be chosen when describing these jewelry pieces. They do not adapt a kind of form that protects or compliments the soft human body, instead they use geometric and rather abstract lines that challenge the body. Therefore in spite of their small size, they bring another level of beauty to our body when worn. Their jewelry looks like modern incantation, evolved from ancient jewelry or tattoos. Each artist's work shows strong characteristics and the highest level of craftsmanship as deep as their journey of questions and reflections.

###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not expression**

Now what are these artworks to consumers? Traditionally, jewelry has been merely a decorative supplement to fashion or body. However *Jewelry Conception*, from the first exhibition, despised the decorative aspect of jewelry in favor of the emphasis of artistic expression. And their offspring seem to have gone even further than expression. Now they suggest conversation or communication. This is the third virtue of the *jewelry conception* exhibition. How can normal individuals have a chance to express *Sang* or *Idea*? Probably this is the closest experience for them to share the process of embodiment of *idea*. These wearable artworks will initiate conversations with other people. They will say, "I have these thoughts on this object, let's talk about it," rather than saying "this is what I am." Each jewelry piece will spread what it represents, inspiring communication. Small objects sit in the gallery. They are precious for the opportunity to imagine archetypal forms and furthermore for the conversations that they will bring. They were born in artists' studios, but when they go out into the world while worn on our bodies, they will reach *Pleroma*, universal being, and will become a new jewelry that elev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Hyunshin Jo

Professor, Dept. of Design Culture,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